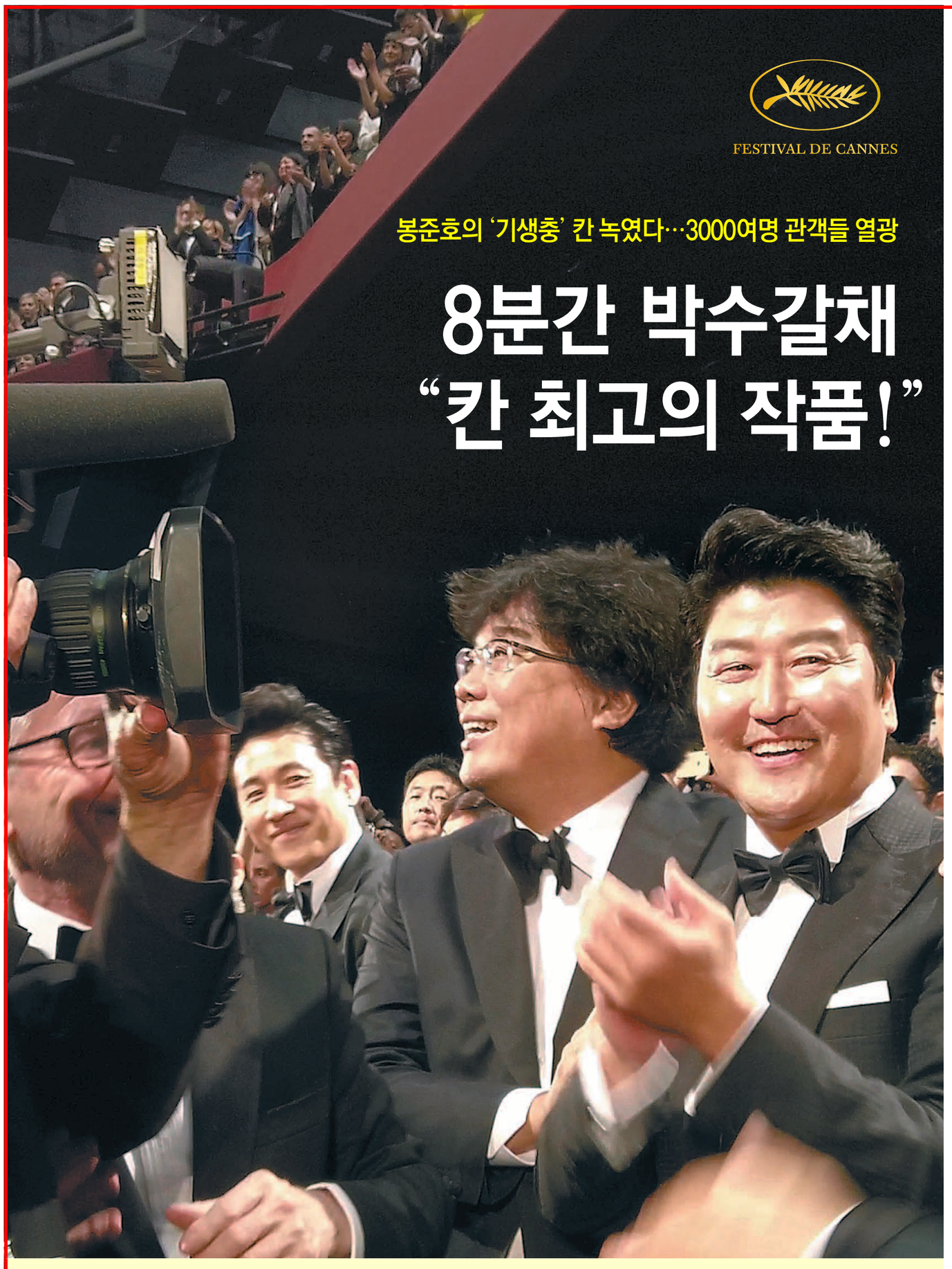
스포츠동아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sportsdonga.com 10판
1위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2년 연속 1위



봉준호의 '기생충' 칸 녹였다…3000여명 관객들 열광

8분간 박수갈채 "칸 최고의 작품!"

"매우 한국적인 동시에 철저한 완성도를 가진 스토리의 정점!"(스크린 인터내셔널) "칸 최고의 작품!"(비욘드 페스트)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인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공식 소식지 '스크린 인터내셔널' 등 해외 언론과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수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2일 오전(한국시간) 영화제 메인 상영관인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기생충' 공식 상영을 마친 뒤 그 주역인 이선균, 봉준호 감독, 송강호(왼쪽부터)가 관객의 기립박수에 화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 CJ엔터테인먼트

이해리 기자의 여기는 칸
칸(프랑스) | gofl1024@donga.com

봉준호 감독이 단연 독창적인 언어로,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의 힘을 과시했다. 스타일은 진일보했고, 주제의식은 더 뚜렷해졌다. "봉준호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호평은 8분간의 '관례적' 기립박수를 넘어 환호의 극찬으로 이어졌다.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 '기생충'(제작 바른손이앤에이)이 22일 오전 5시(이하 한국시간) 영화제 메인 상영관인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베일을 벗고 '날카로운 우화'의 탄생을 알렸다. 빈부격차의 사회적 계급 문제를 담은 영화는 탁월한 완성도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보편적으로 공감할 만한 메시지를 블랙코미디로 완성해 3000여 관객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에 수상 가능성이 더욱 높게 점쳐지고 있다.

●감독·배우들 입장부터 터진 '박수갈채'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최우식 등 주연배우들이 극장에 등장하자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대감의 반영이었다. 달아오른 분위기는 131분의 상영시간 내내 가라앉지 않았다. '기생충'을 "가족 희비극"으로 규정한 감독의 설명처럼 블랙코미디로 무장한 초반부, 객석에서는 끊임없이 웃음이 터졌다. 중반 이후 작품의 주제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객석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관례적 기립 넘어 리듬 맞춰 박수갈채
"봉준호 가장 성숙한 영화" 외신도 찬사
탁월한 완성도…본상 수상 가능성 높아

'기생충'은 기택(송강호)의 장남(최우식)이 젊은 사업가(이선균)의 집에 고액 과외 교사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전부 '백수'인 기택의 가족이 부유한 이선균 가족과 교묘하게 얽히는 과정을 통해 계급사회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그려냈다.

칸을 찾은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이날 "사회적인 계급 문제는 봉 감독이 꾸준히 보여줬지만, '기생충'은 메시지가 더욱 명징하다"며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이슈를 다루면서 그만의 유머와 디테일, 캐릭터를 버무렸다"고 평가했다. 전혜정 런던아시아영화제 집행위원장은 "한국적이면서도 외국 관객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보편적인 이야기"라며 "해외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세계적인 감독으로서 봉준호의 재능이 집약됐다"고 밝혔다.

외신 평가도 고무적이다. 할리우드 리포트는 "2003년 '살인의 추억' 이후 봉준호의 가장 성숙한, 한국사회 현실에 대한 발언"이라는 평을 내놨다. 버라이어티도 "봉준호가 가장 뛰어난 형태로 돌아왔다"고 반겼다.

●송강호 제외한 배우들…첫 칸 방문 '눈시울'

상영 직후 객석에서는 어김없이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칸 초청작에 대한 객석의 기립박수는 제작진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자발적인 '리듬 박수'가 터졌고, 환호까지 보태졌다. 영화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장면이다.

다섯 번째 칸을 찾은 봉 감독은 티에르 프레모 칸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과 포옹한 뒤 마이크를 건네받고 "밤이 늦었으니 모두 집으로 돌아가자!"며 위트 있는 소감으로 웃음을 안겼다. 역시 다섯 번째 무대에서 송강호 역시 여유를 잃지 않았다. 이선균, 조여정, 이정은 등 칸 국제영화제를 처음 경험하는 배우들은 감격한 듯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 관련기사 2면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02558호(2018.06.12) 〈COM-2018-06-28146〉



암보험 걱정!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Ⅲ이 (갱신형) 답이다

암보험 가입하기 딱 좋은 지금, 전화주세요
080-608-1010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가능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이내 제외)
나이가 많아도 (40~75세)
지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보험금도 든든하게! 일시금 정액지급

로봇청소기 상담완료 시, 무료증정!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단, 소액암은 가입 첫날부터 보장)최초 1회보장 (가입 2년 이내 50%)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이므로,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 가입 가능함 •당사의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AIA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